

Non-place Like Home 집 같은 비장소

김지은 개인전

일정 2021년 9월 9일(목) – 2021년 10월 23일(토)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길 20)
문의 T. 720-3031, 549-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Non-place Like Home 폴더)



화성 풍경 - 가림막_2021, 리넨에 유채, 162.1x259.1(cm)

갤러리 시몬은 김지은 작가의 개인전<Non-place Like Home>(집 같은 비장소)을 2021년 9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합니다. 작가는 익숙한 일상의 풍경을 관찰하고 그 공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구조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캔버스에 옮겨와 담론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예컨대, 공사장의 어수선한 풍경이나 건축과정에서 폐기된 부산물들이

거주공간과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 혹은 진부한 일상의 공간들 이면에서 건조하게 살아 숨쉬는 낯선 배경들을 그리는데, 이로써 회화라는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장소들에 대한 시간성과 역사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러리 시몬과의 두번째 전시인 <Non-place Like Home>(집 같은 비장소)에서 작가는 장소성과 역사성이 제거된 신도시와 평면공간으로 제시되는 아파트 공간을 마르크 오제의 '비장소'라는 개념과 접목시켜 비장소와 다름없게 된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갤러리 전층에 걸쳐 기획된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화성(華城)시를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火星)으로 재해석해 개발 중인 신도시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집 같은 '비장소'에서 살아가기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작업들을 선보입니다.

화성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로의 이주, 신도시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번 전시의 서사는 1 층 전시관의 <화성 풍경 - 가림막>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고있는 화성의 '봉담'이라는 지역을 그린 이 작품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가며 내일을 바라보는 공간을 적절한 생략과 변용을 통한 붓터치로 기록했습니다.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화성 풍경 - 모델하우스> 작품은 작가가 꾸준히 주목해왔던 개발과 일상이 공존하고 있는 풍경, 그 안에서 기념비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간의 위계질서를 전복시키는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도시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풍경에 상업용 이미지를 덧대며 작가 자신만의 회화적, 화가적 시점으로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옆집> 시리즈의 4 점의 회화작품 안에서 컨테이너 박스는 납작한 표면에 올라온 사각형의 추상적인 사물로 다가옵니다. 캔버스의 틀 안으로 옮겨온 무겁고 차가운 박스는 간결하게 추려지며 고도의 기술로 포장된 마감에 대한 미적 경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개발과 발전,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도시 풍경에 대한 고도의 비판적인 은유로도 느껴집니다. 예리하지만 덤덤하게 한국 자본주의 풍경의 한 단면을 상징화 시키려는 작가의 이야기는 <모델하우스_화성> 연작을 통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워집니다. 4 점으로 구성된 이 연작은 허구이자 임시방편의 삶을

암시하는 모델하우스를 반투명 유포지에 가볍게 옮겨 그려 일종의 모종의 환영을 말하는 동시에, 건조하고 황량한 또 거친 건축용 자재들로 채워넣은 뒷배경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가 가진 집에 대한 유토피아, 그 욕망을 채우려 감내하는 상처와 어두움을 전달합니다.

작가소개

김지은 작가는 서울대학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Cranbrook Academy of Art 에서 페인팅을 전공하였습니다. 2005 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개인전 <제도화된 풍경>을 시작으로 브레인 팩토리, 대안공간 루프, 두산갤러리 뉴욕, 갤러리 시몬, 블루메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삼성미술관 리움, 경기도미술관, 토탈미술관, 일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소마미술관, 네덜란드의 론 만도스 갤러리, 홍콩의 에스파스 루이비통 등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여하였습니다. 2012 년 제 3 회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3 년 제 13 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스코히건 회화조각학교를 비롯해 미국 소도시에 위치한 7 개의 레지던시와 대만의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한국의 세마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와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의 입주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2013 년에는 이러한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건축 구조물을 통해 그 지역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작업으로 녹여내는 과정을 담은 단행본 <소라게 살이>를 출간하였습니다.. 2014 년 상반기 두산레지던시 뉴욕에 참여한 이후로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Installation view of Non-place like Home, Gallery Simon, 2021



Installation view of Non-place like Home, Gallery Simon, 2021



Model House in Hwaseong #1, Oil on canvas, 130.3x193.9(cm), 2020



Installation view of Non-place like Home, Gallery Simon, 2021